■ 프로배구 거포는?

男-용병 女-토종

'남자는 용병 잔치, 여자는 토종 거포 김연경 독주 체제'
프로배구 2006-2007시즌이 2라운드 종반으로 치달으면서 각 부문의 타이틀 경쟁도 뜨겁다.

〈대한항공 보비〉

〈흥국생명 김연경〉

대한항공 보비 225 득점 1위
흥국생명 김연경 여자 선두

남자부는 브라질 출신의 보비(대한항공)와 레안드로(삼성화재)의 2파전 양상이다.

시즌 초반에는 '괴물' 레안드로가 한 경기 득점 신기록(49점)을 세우며 앞서 나갔지만 보비가 꾸준하게 활약하면서 225 득점으로 1위에 올랐고 레안드로가 223 득점으로 바짝 뒤를 쫓고 있다.

부문 3, 4위인 루니(현대캐피탈)와 윈터스(LIG)는 각각 164득점과 148득점으로 선두와 격차가 크다.

용병들이 득점 부문 1~4위를 점령하면서 지난 해 득점왕 이경수(125득점·LIG)와 송인석(124득점·현대), 신영수(122득점·대한항공) 등 국내 선수들은 타이틀 경쟁에 명함을 내밀지 못하고 있다.

보비는 또 서브와 공격종합, 오픈공격에서도 1위를 달려 최고 스파이커 명성을 쌓아가고 있다.

세트당 서브 0.542개로 윈터스(0.448개)를 추월했고 공격 성공률 51.33%로 송인석(50.99%)과 루니(47.66%), 레안드로(46.11%)를 앞섰다. 오픈공격에서도 52.91%의 성공률로 송인석(45.45%)과 이경수(42.98%)를 크게 따돌려 순도 높은 공격력을 뽐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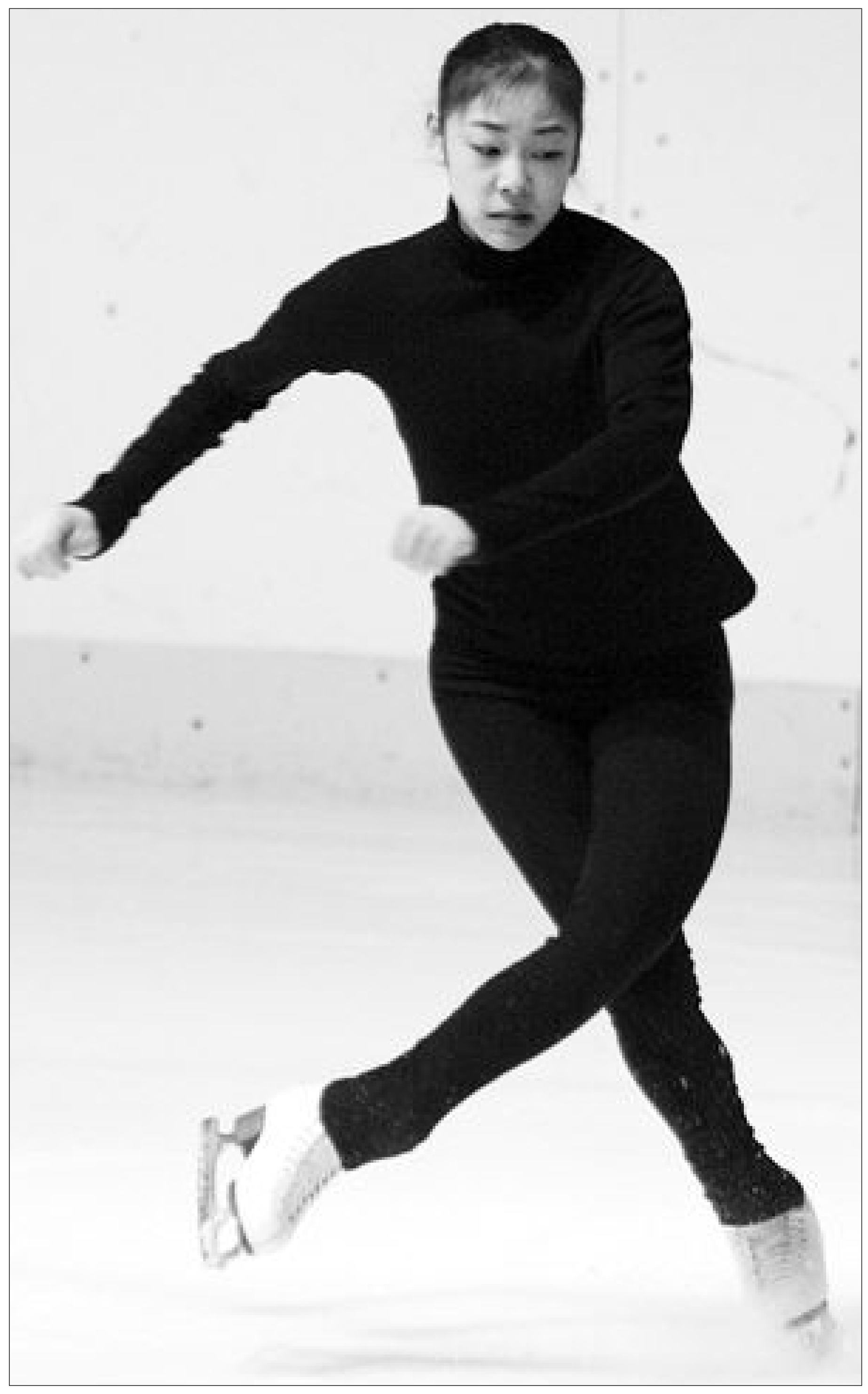
여자부는 지난 해 득점왕 등 공격 7개 부문 1위를 석권했던 2년차 김연경(흥국생명)이 228득점으로 부문 1위를 달리고 있다. 용병 레이첼 밴미터(도로공사·196득점)가 그 뒤를 잇고 있다.

2라운드 초반까지 레이첼이 독주하다 김연경이 최근 추월했는데 레이첼이 김연경보다 한 경기 덜 치렀기 때문에 둘 다 득점왕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연경 외에 김민지(158득점·GS칼텍스)와 정대영(150득점·현대건설)도 각각 3위와 5위로 득점 5위권에 이름을 올리는 등 각 팀의 토종 주포들이 득점 부문 경쟁에서 선전하고 있다.

특히 김연경은 득점 부문 말고도 공격종합(44.63%)과 오픈공격(42.70%), 이동공격(58.33%)도 선두를지켜 용병 뺨치는 맹활약을 과시하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제발 살살" 허리 통증으로 동계아시안게임 출전이 불투명한 김연아 선수가 16일 태릉선수촌에서 몸을 풀고 있다. /연합뉴스

이형택 1회전 탈락

호주오픈테니스

이형택(세계랭킹 49위·삼성증권)이 호주오픈테니스 징크스를 떨치지 못하고 1회전에서 탈락했다.

이형택은 16일 호주 멜버른 로드 레이버 아레나에서 열린 총상금 147억 원이 걸린 호주오픈 단식 1회전에서 체코의 강호 토마스 베르디흐(13위)에게 0-3(1-6 2-6 2-6)으로 완패했다.

지난 2001년부터 이 대회에 참가해 온 이형택은 이로써 지난 2003년 2회전에 오른 것을 제외하고 5번 모두 1회전을 넘지 못하고 일찍 짐을 쌌다.

"강해지는 구질 훈련"

박찬호 홈피에 근황 소개

미국프로야구에서 지난 시즌 뒤 자유계약선수(FA)로 풀리고도 계약하지 못하고 있는 한국인 메이저리그 투수 박찬호(34·전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사진**)가 근황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소개했다.

박찬호는 16일 자신의 국내 매니지먼트사인 팀61이 운영하는 홈페이지(www.psgkorea.com) '찬호로부터' 코너에서 "요즘 운동도 잘 되고 있고 변화된 투구 폼에서 더욱 강해지는 구질을 위해 훈련하고 있습니다. 집에서나 운동장에서나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라고 전했다.

지난 시즌 5년 간 총 6천600만달러의 FA 계약이 만료된 뒤 올해 보름이 지나도록 계약을 하지 못하고 있어 궁금해하는 팬들에게 자신의 소식을 처음 알린 것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전년도 꼴찌팀부터 선수 선발"

■ 농협 드래프트 변경요구 논란

"지역 연고권 폐지해야"
KIA·롯데 등 강력 반대

농협이 현대 유니콘스 인수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면서 '전면 드래프트제' 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한국 프로 야구의 선수 확보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고졸·대졸·실업 등 아마추어 선수를 대상으로 한 신인지명 제도와 1998년부터 시작한 외국인 선수 영입. 그리고 해외에 진출했던 한국 선수를 국내로 복귀시키는 방법이다.

이 가운데 신인 지명제도인 드래프트제는 연고지 1차 우선 지명과 2차 지명이 있다. 한국프로야구는 1991년부터 지난해까지 연고지역별로 1명씩을 해당구단이 1차 지명했으나 올해부터 2명으로 확대했다. 2차 지명은 전년도 성적 역순에 따라 지그재그로 지명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연고지 이전에 발이 묶인 현대는 2003년부터 5년째 1차 지명에서 배제돼 신인 수급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다.

이에따라 현대는 최근 한국야구위원회(KBO)이사회에서 전면드래프트 실시를 주장했지만 대부분 구단이 외면해 뜻을 이루지 못했다.

현대측이 주장하는 전면드래프트는 현재의 1차 우선 지명 제도를 없애고, 8개 구단이 전년도 성적 역순으로 공평하게 뽑자는 제도.

1차 우선 지명이 사라지면 국내 8개 구단에서 우수 신인 선수를 영입할 수 있는 권한이 동등해 지고 신생팀 창단도 쉬워진다는 게 현대측의 주장이다.

반면 광주·부산·경남·서울 등 자원이 좋은 지역을 연고권을 둔 구단들은 전면 드래프트에 반대하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이승엽 2005년 삼성복귀 원했다"

삼성구단 관계자 밝혀

올해 일본프로야구에서 최고 연봉(6억5천만엔 추정) 선수가 된 이승엽(31 요미우리 자이언츠)이 한때는 친정팀 삼성 라이온즈 복귀를 간절히 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 관계자는 "일본 진출 첫 해였던 지난 2004년 겨울 고전을 면치 못한 이승엽이 삼성에 돌아오고 싶다는 뜻을 처음으로 내비쳤고 30홈런을 쏘아 올리며 '절반의 성공'을 거뒀던 2005년에도 삼성 복귀를 원했다"고 16일 전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승엽의 국내 복귀는 이뤄지지 않았고 전화위복이 돼 이승엽은 지바 롯데에서 요미우리로 팀을 옮긴 지난해 일본 최정상급 타자로 거듭나며 성공시대를 열기 시작했다.

한국의 '국민타자'였던 이승엽은 바비 밸런타인 지바 롯데 감독이 펼친 플래툰 시스템(좌우 투수에 따라 상대 타자를 바꾸는 것)의 희생양이 됐고, 반쪽 선수로 전락하는 바람에 마음 고생이 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힘들고 지쳤을 때 고향팀 삼성이 떠오른 건 인지상정이었다.

그러나 몸값, 삼성의 장기적인 구단 운영계획 등 이승엽이 복귀를 추진하기 위해 넘어야 할 걸림돌이 만만치 않았고 결국 복귀 시도는 무위에 그쳤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스포츠중계

17일(수)

▲여자프로농구 겨울리그〈신한은행-삼성생명〉(16 : 50·SBS스포츠)

▲프로농구〈오리온스-KCC〉(18 : 50·SBS스포츠), 〈모비스-KTF〉(18 : 50·X-ports)

▲V-리그〈도로공사-현대건설〉(16 : 30·KBSN Sports), 〈LIG-한국전력〉(19 : 00·KBSN Spor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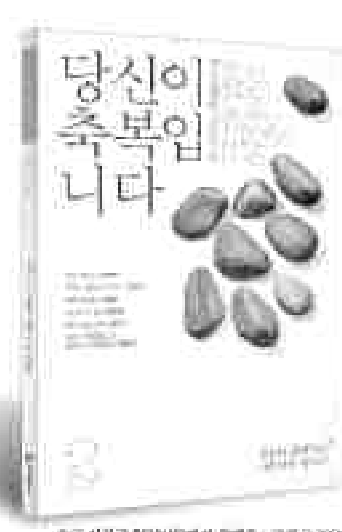
18일(목)

▲PGA투어 밥 호프 크라이슬러 클래식 1R(05 : 00·SBS스포츠)

당신이 축복입니다 Monthly Magazine You are the very blessing 2007. 2

세상을 아름답게 밝혀주는 행복지
월간 《당신이 축복입니다》

당신이 환하게 빛나며 존재하고 있는 것은 당신 곁에서, 앞에서, 밑에서 혹은 위에서 누군가 당신을 비춰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비춰주기 위하여 우리는 이 세상에 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 누군가를 비춰주고 있는 당신이 별입니다.
마음을 선물해주는 월간 행복지 《당신이 축복입니다》



2007년 2월호 따뜻한 아랫목 화롯불 같은 이야기!
지금 당신의 마음속으로 찾아갑니다.

우리 시대 큰 어른으로 존경받고 있는 목사이자 동화작가인 이현주 님의 '존재 자체가 거룩함이요, 살아있음 자체가 축복'이라는 2월의 메시지.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합성어 '디지로그'라는 신조어를 만든 이어령 님의 글 감과 《엄마 어렸을 적엔》이라는 단행본으로 300만 관객을 모은 인형작가 이승은 님의 엄마 어렸을 적 이야기. 우리 몸은 온통 사랑으로 이루어졌다는 이유명호 님의 글. 장애인 아이들과 산행을 하다가 느낀 여자 장애인이 받는 이중적 장애의 아픔을 쓴 시인 정끝별 님의 글이 진한한 감동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아프리카 기아 어린이를 돕고 있는 탤런트 김혜자 님. 실명 위기에 놓인 아들을 위하여 한 땀 한 땀 털실을 기워 누엔이 인형을 만들며,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는 기적을 보인 조구자 님의 부엉이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정기구독 안내 정기구독료 1년 구독료는 두달치가 할인된 2만 원입니다.
구독신청 전화 02)586-2277 | 팩스 02)586-2337 | 홈페이지 www.gitan.co.kr

G 기탄교육